

2024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고린도 후서

메시지 5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거울

성경: 고후 3:15-18, 고전 15:45, 요 7:39

- I.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겨질 것입니다”—고후 3:15 하 -16.
 - A.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져야 한다—고전 15:45.
 - B. 너울, 즉 주님에게서 떨어진 마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주님 외의 다른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후 3:15-16.
 - C. 모든 너울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데 기인한다—비교 엡 3:17 상.
 - D. 우리에게 너울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고 반사할 수 없다—고후 3:18.
 - E.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으므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너울이 있게 된다.
 1.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과 대면하여 교통할 수 없다.
 2.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너울이 벗겨질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후 3:15-16.
 - F.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겨진다. 그럴 때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후 3:18.
- II.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고후 3:17.
 - A.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영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자유도 들어온다. 그 영께서 자유이시다—고후 3:17.
 - B. 고린도후서에서 2 장 12 절에서 시작되는 이 부분의 문맥에 따르면, 3 장 17 절의 주님은 틀림없이 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후 2:12, 14-15, 17, 3:3-4, 14, 16, 4:5.
 - C. 주님의 영은 주님 자신이며, 그분께서 계시면 자유가 있다.
 - D. 고린도후서 3 장 17 절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해주는 분명한 말씀이다.
 1. 삼일 하나님의 최종 표현이신 그 영은 요한복음 7 장 39 절의 때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요 12:16, 23, 13:31-32, 17:1, 5.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통과해야 할 과정을 아직 끝나치지 않으셨다.
 3. 그분의 부활하신 후에, 즉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경륜을 위하여 사람 안에서 통과하셔야 했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같은 모든 과정을 끝나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 E. 신약에서 생명 주시는 영은 ‘그 영’이라고 불린다(롬 8:16, 23, 26-27, 갈 3:2, 5, 14, 6:8, 계 2:7, 3:22, 14:13, 22:17). ‘그 영’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고후 3:6, 요 6:63).

III.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고후 3:18 상.

- A. ‘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은유적인 것이다.
1. 거울은 대상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역량이 있다.
 - a. 한 면에서, 거울은 사람이나 대상을 바라본다.
 - b. 다른 면에서 거울은 바라본 그것을 반사한다.
 2. 우리는 너울을 벗은, 가려지지 않은 얼굴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반사하는 거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반사한다.
 3.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너울이 벗겨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거울로서 기능을 발휘한다—고후 3:16, 18:
 - a. 처음에는 거울에 아무런 형상도 없을지 모른다.
 - b. 그러나 거울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수록 거울에 그 사람의 형상이 더욱더 있게 된다.
- B. 고린도 후서 3 장 18 절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한다.
1.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 그러므로 잘 보고 합당하게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에서 너울이 완전히 벗겨져야 한다.
 3.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반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반사할 때, 그분의 요소와 본질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해진다—고후 3:18.
 4. 아침 일찍,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반사하기 위해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5. 주님을 바라보고 반사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맛, 즉 참된 누림을 갖는다.

IV. 우리 모두는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고후 3:18 하.

- A.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할 때, 주님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하신다.
- B. 18 절에 있는 형상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1.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즉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롬 8:29.
 2. ‘형상’은 다만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존재의 외적 표현을 가리킨다.
- C.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분의 생명의 본질로, 또 그분의 생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외형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롬 12:2) 그분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 D. 믿는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변화되고 있다.
1.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혼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확산하는 일을 하시는 내적이고 신진대사적인 과정이다—롬 12:2.
 2. 그 결과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후 3:18). 즉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된다.
- E.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에’를 의미한다—고후 3:18.
- F. ‘주 영’은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와 같은 복합적인 칭호로 여겨질 수 있다.
1. 이 표현은 주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과 그 영께서 주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확증한다.
 2. 고린도후서 3 장에서 이 영은 쓰시는 영(3 절), 생명을 주시는 영(6 절), 사역하시는 영(8 절), 자유롭게 하시는 영(17 절), 변화시키시는 영(18 절)으로 계시된다.